

홈 > 뉴스 > 경제 > 종합

신화역사공원 사계절형 리조트 조성

EMG그룹-JDC 3일 투자협약

2013년 04월 04일 (목) 11:38:45

강권중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3일 JDC 본사에서 말레이시아 EMG그룹과 총 사업비 약 1조원 규모의 신화역사공원 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강권중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이하 JDC)는 3일 JDC 본사에서 말레이시아 EMG그룹(대표 알렉스)과 총 사업비 약 1조원 규모의 신화역사공원 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EMG그룹은 신화역사공원 사업면적 399만㎡ 가운데 172만㎡ 부지에 '4계절형 복합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알렉스 EMG그룹 대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직접 답사하고 지난달 투자 의향서를 JDC에 제출했다.

JDC 관계자는 "EMG그룹은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안지구에도 총 사업비 12억불 규모의 자연문화유산 테마 복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품격 4계절형 리조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민자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활기를 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JDC는 지난 2004년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에 총사업비 1조1010억원을 투입, 제주도와 동

북아의 독특한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테마공원 조성 등 복합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신화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강권종 기자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